



← ◆ '튼튼한 이모·삼촌 되어주기'

민·관 하나로 복지틈새 메꾼다

덕진구(구청장 박선이)가 민·관 협력을 통해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틈새를 메우기 위해 팔소매를 걷어붙였다. 덕진구는 올 한해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거나 예산·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보호하기 어려운 복지틈새를 해결하기 위해 뜻이 있는 민간기관·단체와의 협치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촘촘복지 덕진구 만들기'를 중점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덕진구는 △더행김희망이음사업 △튼튼한 큰아빠·큰엄마 되어주기 △튼튼한 이모·삼촌 되어주기 △작은 소원 들어주기 사업 등을 지속 전개하기로 했다.

급여탈락자 완충 보호... '더행김희망이음'

먼저, 급여탈락자 완충보호를 위한 '더행김희망이음사업'은 복지수급대상자 중 변동사유가 발생해 수급이 중지된 세대 중 다시 빈곤계층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취약계층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세대를 우선 발굴해 민간자원을 활용해 집중 관리하는 사업이다. 덕진구는 현재 민간자원 이웃돌봄과 연결해 66세대의 복지틈새를 발굴·지원하고 있으며, 변화되는 복지제도 안내 및 지역사회 민간 자원 발굴 등 1:1매칭 지원을 통해 이들 세대가 복지사각지대로 전락하지 않도록 힘쓰고 있다.



◆ '튼튼한 큰아빠·큰엄마 되어주기'

가족의 개념 도입... '튼튼한 가족 되어주기'

이와 함께, 덕진구는 가족의 개념을 도입한 '튼튼한 가족 되어주기 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일회성 나눔행사가 아닌 가족의 개념을 도입한 평생 결연사업으로, '튼튼한 큰아빠·큰엄마 되어주기'와 '튼튼한 이모·삼촌 되어주기'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튼튼한 이모·삼촌 되어주기' 결연은 덕진구 관내 다자녀 및 한부모 가정 초등학생 11명과 팔복동 첨단벤처 단지에 소재한 '바로텍시너지'의 20·30대 젊은 연구원들과 함께하는 사업으로, 바로텍시너지 연구원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들에게 '튼튼한 이모·삼촌'이 돼 정서·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나섰다. 이러한 평생 결연사업을 통해, 대상 어린이들이 정서적 안정을 찾아 질풍노도의 청소년기를 건강하게 보내고, 다양

'더행김희망이음' 사업 추진 복지사각지대 해소

'튼튼한 결연 사업' 전개로 동네 한가족돼 소외이웃 제로화

대표 특수시책 '작은소원들어주기' 이웃들이 돌보는 '복지프렌드' 전주대와 함께하는 '행복나들이' 도 벌여



◆ '작은 소원 들어주기'

한 경험을 통해 인목을 넓히고 꿈과 희망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깨비방망이같은 '작은 소원 들어주기'

끝으로, '아이들의 작은 소원 들어주기 사업'은 덕진구의 대표적인 특수 시책으로, 저소득 아동들이 평소 꼭 이루고 싶었던 바램들을 소원공모를 통해 신청하면 정말로 원하는 소원을 이뤄주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사업이다. 이 사업은 민간 기부금 및 덕진노인복지관 후원금으로 진행되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400만원 증액된 1,700만원의 후원금을 활용해 오는 20일 대상자를 선정하고, 5월부터 희망 선물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 오는 9월에는 희망여행에 나



◆ '행복나들이 협약'

서길 꿈꾸는 아이들의 작은 소원 잡기에 나선다. 이밖에, 덕진구는 노인·장애인·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이웃사람들이 스스로 돌보는 '복지프렌드 사업'과 동현교회·전주대학교와 함께하는 '행복나들이', 사랑의올타리 봉사단 '떡국 봉사'와 '사랑의 말반찬 나누기' 등 다양한 민간자원을 활용해 훈훈한 인정이 오가는 촘촘한 덕진구를 만들어가고 있다. 박선이 구청장은 "민·관이 협력한다면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틈새도 막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민간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촘촘복지 덕진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덕진구는 다양한 이웃돌봄 참여자를 모집 중으로, 꾸준한 결연을 희망하는 개인과 기관, 단체는 덕진구청 희망복지팀(063-270-6782)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민근 기자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